

인쇄 및 관련단체 2011년 정기총회



제지연합회, 제60회 정기총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회장 이상문)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6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지연합회 이상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지업계는 내수부진과 원료구득 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한 바 있다”며 “올해도 원료수급 불안, IT발전에 따른 수요 감소, 통상·환경규제 등 전망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지만 힘을 합쳐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인사말에 이어 2010년 사업보고 및 2011년 사업계획(안)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우수제지인상 시상에는 쌍용제지(주) 생산부 조영규 초지실장을 비롯한 2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윤형두 대표 선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강당에서 제6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장에 출마한 윤형두 범우사 대표와 최병식 주류성출판사 대표가 총 유효투표 273표중 각각 143표와 128표를 얻어 윤형두 범우사 대표가 대한출판문화협회 제4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로 선출됐다. 이외에도 전형위원 8인을 선출하기위한 선거에 임후보한 6명 전원이 선출됐다. 전형위원에 선출된 위원은 정종진 도서출판 성림 대표, 이형규 콤팩출판사 대표, 이병수 아람 대표, 고정일 동서문화사 대표, 정우용 동화기술 대표, 박찬익 박이정출판사 대표다. 감사 역시 단독출마한 이준직 한국기독교문화원 대표가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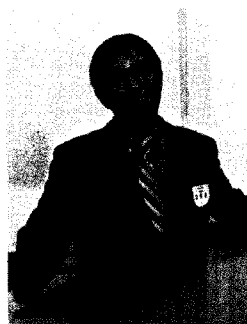


신임회장에 선출된 윤형두 회장은 “올해 77살이 된다.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산을 오를 정도로 건강하니 염려하지 말라”며 “출판인의 위상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출판인회의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고영은대표 선출



한국출판인회의(회장 한철희)는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 지하 강당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고영은 뜨인돌 대표를 차기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감사와 이사선임위원회 선임위원도 추대로 이뤄졌는데, 감사는 장의덕 개마고원 대표, 주연선 은행나무 대표가, 선임위원으로는 송영석 해냄출판사 대표, 한성봉 동아시아 대표, 김기옥 한즈미디어 대표 등 6명이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0년 사업보고, 감사보고, 2010년도 수지결산보고, 201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출판유통건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이행사(안), 임원(회장, 감사, 이사선임위원) 선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출판유통 건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이행합의서(안)

이 상정됐는데, 이는 발행후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의 할인은 정가 대비 최대 30% 이내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이 이행합의서는 한국출판인회의, 교보문고, 대교리브로, 서울문고,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11번가가 참여해 결의했으며, 해당내용은 이달 16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G마켓은 이행합의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사회협약 이행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출판학회 정기총회, 신입회장에 남석순 회장 선출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정준)은 지난 2월 21일 오후 1시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제22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31회 한국출판학회상 시상식,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직 선거가 있었는데, 1번 남석순 후보, 2번 부길만 후보중 남석순 후보가 유효표수 113표중 69표를 얻어 44표를 얻은 부길만 후보를 제치고 출판학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제22회 정기학술대회는 신종락 성균관대 정보관리연구소 전임연구원이 ‘한국현대 출판유통 50년의 발자취 및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이어진 한국출판학회상 시상식에서는 저술연구부문에 윤금선 <우리책읽기의 역사> 저자가, 기획 편집부문은 도서출판 세계사(대표 최윤혁)가, 경영 영업부문에는 김성룡 교보문고 대표가 수상했다.

이후 4시부터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 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의결, 2011년도 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의결, 신입회장 및 감사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이정준 회장은 퇴임인사에서 “항상 학회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아쉬운 마음이 있다. 한국출판학회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차기 회장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임회장이 된 남석순 회장은 “특정 대학원에 치우치지 않은 한국출판학회를 통해 출판학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출판협동조합 정기총회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김중영)은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B1층 그랜드홀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감사선거가 있었는데, 김병계 보문당, 유광중 한국이공학사, 박선진(주)월드사이언스, 이방원 세창출판사, 최용철 두리미디어 후보중 이방원 세창출판사 대표와 최용철 두리미디어 대표가 선임됐다.

이날 총회는 2010 사업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010 사업년도 이익 잉여금 처분(안) 승인 및 지분산정 요율 결정의 건, 출자 준비금 배당 전환의 건, 2011 사업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위임의 건, 2011 사업년도 가입금 결정의 건, 2011 사업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이사회 위임의 건, 조합 수익 사업 시행 이사회 위임의 건, 정관 개정의 건, 가입금 및 조합비에 관한 규약 개정의 건, 대부규약 개정의 건, 임원(감사)선거의 건, 기타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잡지협회 회장에 이창의 대표 선출

한국잡지협회(회장 전용진)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회장으로 이창의 대표를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2010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안) 승인 건,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건, 제39대 임원 선출의 건, 기타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스크린인쇄협회 정기총회

(사)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회장 신지철)는 지난 2월 25일 오후 3시 서울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제28차 정기총회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2010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의 건,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의 건, 기타 안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재복)은 지난 2월 24일 11시 서교호텔 트러스트룸에서 제 38차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